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

▲ 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발언 중인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 사진=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3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UNCTAD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고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최초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모한 데 이어 2016년에는 22개 주요 채권국협의체인 '파리클럽' 에 21번째로 가입하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도 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다.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했다.

자녀 돌봄 서비스·외국인력 유입 확대

한국 정부가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기로 했다.

7일 '이데일리' 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며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초등돌봄 시간을 연장하고 온종일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민간돌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해외인재 유입도 더욱 활성화한다.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비자(F-2) 발급을 확대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IT·첨단기술 분야 우수인재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가 가능한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건강보험 지출관리도 강화한다.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도 개편한다.

또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도 제공해 노인돌봄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에 발맞춰 대학의 구조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에 대한 역량 진단 등을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과 폐교·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 지방공무원 비율 40% 돌파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등 여성 신규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 수는 13만6천71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13만2천563명)보다 3천508명(2.6%) 증가한 수치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년도 39.3%에서 7.3%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지자체 여성공무원은 20011년 8만4천23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6년(10만6천12명) 처음으로 10만명을, 2019년에는 13만명을 넘었다. 여성 지방공무원 비율도 2011년 30%, 2013년 31.3%, 2015년 33.7%, 2017년 36.4%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높아진 것은 공채 합격자 등 신규채용되는 여성이 매년 증가하는 데 비해 퇴직자는 남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직 7급 공채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52.1%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9급 공채 여성 합격자 비율은 57.1%였다. 9급 여성 합격자는 2005년 이후 계속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채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로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222명, 여성은 63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2003~2010년에는 남성이 196명, 여성이 944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하지만 2011년 이후로는 상황이 역전돼 남성이 더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10년간 남성 1천524명, 여성 436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